

개구리 셈세기 한다

● 신금화 저



한오리 실바람
해구슬 따다주면

련잎우에 앉아
개굴개굴

셈세기한다.

개 구 리 셈 세 기 한 다

● 신 금 화 저



출판사
조선민중출판사

图书在版编目(CIP)数据

青蛙数数: 朝鲜文 / 申锦花著. —哈尔滨: 黑龙江朝鲜民族出版社, 2009. 5

ISBN 978-7-5389-1611-9

I. 青… II. 申… III. 儿童文学—诗歌—作品集—中国—当代—朝鲜语(中国少数民族语言) IV. I287.2

中国版本图书馆 CIP 数据核字(2009)第 063323 号

书 名/ 青蛙数数

著 者/ 申锦花

出版发行/ 黑龙江朝鲜民族出版社

发行电话/ 0451-57364224

电子信箱/ hcxmz@126.com

责任编辑/ 徐 燕

责任校对/ 宋英爱

封面设计/ 李光吉

印 刷/ 牡丹江新闻传媒印务有限公司

开 本/ 850mm×1168mm 1/32

印 张/ 3.75 印张

字 数/ 6.5 千字

版 次/ 2009 年 5 月第 1 版

印 次/ 2009 年 5 月第 1 次印刷

书 号/ ISBN 978-7-5389-1611-9 (民文)

定 价/ 10.00 元

동시집을 내면서

번개불에 콩 볶는 격이랄까 뜻밖에 동시집을 출간하게 되니 너무너무 꿈만 같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책을 사보라고 터실터실한 손으로 괴춤에서 돈을 꺼내주시던 엄마, 술소비돈을 털어 넘겨주시던 아버지가 너무 그립습니다. 받을줄만 알고 보답을 몰랐으니 이 책으로나마 천국에 계시는 부모님께 티끌만한 효성이라도 할수 있었으면 하는 자아위안을 해봅니다.

시골아낙네가 터밭에 심은 빨간 눈, 노란 눈 감자가 커 다란 빨강뽕, 노랑뽕 되어 달려있기에는 선배님의 로고와 갈라놓을수 없습니다. 시가 뭔지도 모르고 물덤병술덤병 덤벼보며 남들이 긍정하는 글이라도 써보겠다고 모지름을 쓰며 허위허위 걸어왔습니다. 걸어온 자국마다 다복다복 담겨진 땀방울이 오늘은 열매로 되어 여러분께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툭툭 갈라터진 삶은 감자가 여러분의 입맛을 돋굴수 있는 구수한 조미료가 되어준다면 행복하겠습니다.

동시집을 출간하기까지 저의 손을 이끌어주신 시인

최룡관선생님께 진심으로 되는 감사를 드립니다. 사업이 다망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을 할당하여 평론을 써주신 한석윤시인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국땅에서 항상 용기를 주고 힘이 되어준 남편, 사랑하는 아들과 형제들에게 감사의 말을 하고 싶습니다. 항상 자신의 일처럼 사랑과 관심을 돌려준 친구와 문우들에게 감사의 마음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출판해주시느라고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창졸한 시간이라 작품의 질에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되면서 여러분들의 기탄없는 조언을 바랍니다. 앞으로 훌륭한 자식의 출산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것입니다.

저자





차례

머리말 1

제1 부 사랑배 띄워보낸다 1

물만두 3

흰구름.1 4

할머니 이마 5

노랑 벽알 6

입쌀 7

해바라기.1 9

소나무 10

감자 11

도화지 12

앵두나무 13

흰구름.2 15

락화생 16

굴	17
쫄각달	19
눈	20
석탄	21
해바라기.2	22
물고기	23

제2부 노란 열매 익었어요 25

사과	27
바람	28
연필	29
가로등	31
학교.1	32
가을	34
흑판	35
거미줄	36
나무	37
돈벌레	38
지렁이	39



오토기	41
눈꽃	42
달구지	43
반지	44
바가지	45
보름달.1	47
귀뚜라미	48
연기	49
랭장고	50
벼	51
봄새	53

제3부 개구리 생세기찬다 55

개구리	57
여름산	58
비	59
시간	61
딱따구리	62
콤바인	63



눈치는 불도젤 64

닭알 65

은하수 67

탁상등 68

배추김치 69

봄 71

곰 72

성애꽃 73

버섯 75

제4 부 팔랑팔랑 들랑날랑 77

파도 79

겨울바람 80

봄바람 81

새별 83

책가방 84

벽보 85

나비 87

갸 88



줄뛰기	89
분필	90
보름달.2	91
할머니	92
샘물	93
새싹	95
성냥	96
바다	97
반달	98
거미	99
고무지우개	100
장갑	101
학교.2	102

천진하고 참신한 상상이 빚어낸 동시(한석운) 103



제1부

사랑배 띄워보낸다

물만두

졸망졸망
부두에 정박한
하얀 쪽배

흔들흔들
강 건널 손님
기다린다.



흰구름.1

구름은 흰 다리미

새하얀 샤쯔도

다리미질하고

새파란 샤쯔도

다리미질하고

해님 주름도

다리미질 한다.



할머니 이마

할머님 이마에
강 지니고 사신다

흐르는 강에
찰랑찰랑
넘치는 사랑

할머님 그 강에
사랑배 띄워보낸다.



노랑벼알

새판란 꿈을 안고
태어난 아기

정미소로 시집가더니
금빛옷 홀랑

부끄러워
살짝—
주머니속에 숨어요.



입쌀

주르르 주르르
가마에 뛰어들어
출랑출랑 목욕한다

씩-씩- 단김 내 뿜으며
기차놀이 성수난다

가마안에 꼰뚱
하얀 꿈 쌓았다.

